

#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시급하다

## 15대 국회에 보내는 편지

(김주환 / 뉴미디어 평론가)

21

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 갈 제15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통신기술의 앞과 뒤를 헤아려 우리 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은 분명 이번 국회가 짊어진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서 다른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건설과 이의 기반이 될 공공도서관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보화사회 논의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난 총선에서 이것을 중요 공약으로 내거신 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자 정부’ 실현 등 온갖 뉴미디어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시안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 반구 없었습니다. 더구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간지들은 인터넷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무지를 볼모로 삼아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갖다 안기자는 캠페인을 경쟁적으로 벌임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마치 어린이들에게 웹페이지나 만들어 주고 ‘인터넷 과

의 공부’나 시키는 것인양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부정 부패 척결, 경제 성장, 환경 오염 등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라니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건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여러 시급한 문제들을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평등하며, 문화적으로 풍요한 민주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개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법적 장치를 만들어 컴퓨터 통신망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공공도서관이 더 이상 수험생들의 공부방이나 묵은 책을 쌓아두는 장소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여러 정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창구와 교육 자원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개방되면 촌지 문제도 자동 해결  
 각 지역 공공도서관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여러 대 마련해 놓고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사용자 계좌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컴맹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은 자기 지역과 나라의 여러 문제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문제를 교사와 수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최대 병폐인 촌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민주 정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올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법’을 논의할 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 정부라면, 모든 단계의 행정 과정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 어항 속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정부를 수립하는 것만이 부정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지역 네트워크는 국민 모두가 정부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 도서관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설립은 또한 가장 효율적인 지역구 관리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히 힘을 쏟으신다면 현명한 유권자들은 여러분을 4년 뒤에 또다시 국회의로 보낼 것입니다.

이 글은 종합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제341호(96. 5. 9)의 제 96쪽에 실린 기사를, 시사저널사와 필자인 김주환님(미국 펜실바니아대학 유학 중)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전재를 허락하여 주신 시사저널과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 편집자